

추석 앞둔 '나주배 본격 출하' 저온·폭염에 특품 생산량 뚝

배 주산지 경매가격 하락한 반면 소매가격 상승



11일 추석 명절이 보름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나주배 농가는 마냥 즐겁지 않다. 수확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화기 저온피해로 착과율이 평균 20% 이상 떨어진다. 기록적인 폭염과 수확기 폭우가 이어지면서 특품 생산량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나주배 경매가 이뤄지고 있는 나주배원예농협 공판장.

추석 명절이 보름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나주배 농가는 마냥 즐겁지 않다. 수확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화기 저온피해로 착과율이 평균 20% 이상 떨어진다. 기록적인 폭염과 수확기 폭우가 이어지면서 특품 생산량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나주배원예농협 등에 따르면 최근 중만생종 신고배가 최대 성숙기인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15kg(2과) 특품 경매 가격은 3만5000원 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추석 때 3만8000원에서 4

만원 안팎으로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평균 경매 가격은 3000원 ~5000원 정도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7.5kg(15과) 특품 경매 가격도 최고 2만5000원에서 최저 2만원선으로 지난해 보다 평균 3000원~4000원이 떨어졌다. 문제는 배 주산지 공판가격은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소매가격은 큰 폭으로 오른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올해 배 유통시장 가격 왜곡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aT KAMS)에 공시된 최근(지난 7일) 거래된 신고배 소매가

격은 1kg 기준 2453원으로 지난해 대비 31.8%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가격 대비 소매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배 공판시장 형성도 지난해보다 늦어지고 있다. 나주배농협 공판장의 전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공판 규모는 3만 박스가 거래됐지만 올해는 하루 7000여 박스가 거래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배 공판 시장 형성이 늦어진 원인은 배 가격 상승을 관망하는 농가들이 출하를 늦추고 있는데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농가 출하물량이 분산되고 소비자 직거래 물량이 소폭 증가하면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주배농협 관계자는 "개화기 서리로 인한 냉해에 폭염과 폭우 피해로 일부 농가의 배 품질이 떨어지면서 올해 배 공판가격은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추석을 10여일 앞둔 15일께부터 고품질 배 출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과수농가 정모(48)씨는 "지난해 이어 올해 경매 가격도 생산비나 조금 건지는 수준인데 소매가격은 30%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어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농민들이 한 해 동안 고생해서 농사지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성 있는 유통구조 개선책을 내 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의 배 생산지인 나주는 전국 배 재배면적(1만3127ha)의 16.9%인 2022ha에서 신고·원황·주황·황금배 등을 재배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6만여으로 전국 생산량의 19.9%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스

광주 송정KTX역 투자선도지구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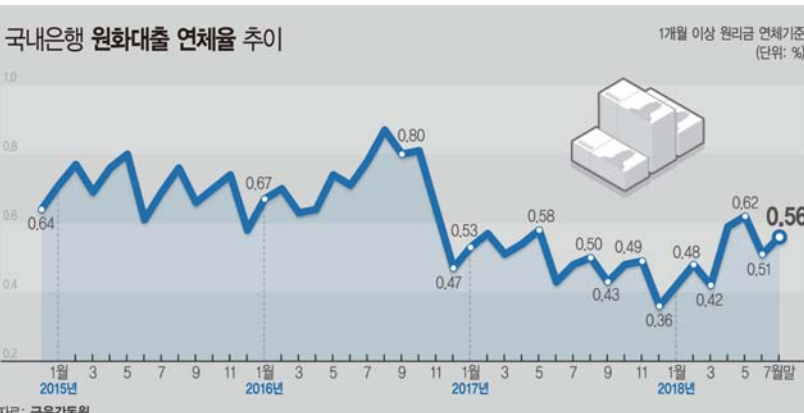
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광주 송정역 일대 지역경제거점형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발전 잠재력

예타 통과...시-LH, 송정역 일대 64만㎡ 개발 "장기간 방치·난개발 체계적인 재생·개발"

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속철도 역사와 관련해 지정받은 것은 광주송정역이 처음이다. 광주송정역은 고속철도 개통 이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옛 유흥구역이 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난개발이 확산돼 체계적인 재생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실현

건축물에 조형미를 가미하고 광주다운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 광주송정역 전방을 상업 일변도로 개발하는 대신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교육 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1913공생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접포를 말한다. 시와 LH는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최종 예타 통과로 내년까지 지구 지정,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2020년에는 토지보상 손실보상 등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를 찾는 분들이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광주송정역 일대를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호남의 관문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조성해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은행권 中소대출 연체율 '경중'...전월比 0.1%↑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05%p 오른 0.56%로 집계됐다.

국내 은행권의 연체율이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0.73%) 대비 0.08%p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1%p 오른 1.79%를 나타냈는데 중소기업대출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선박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신규연체가 발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불황이 관련 협력업체들의 매출에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은 지난해 7월보다 각각 17.5%, 15.1% 감소했다. 조선업의 경우에도 지난 2015~2016년 수주절벽 여파가 올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한편 7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0.25%)보다 0.02%p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0.01%p 올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대출 등 나머지 가계대출은 0.44%로 전월 대비 0.04%p 상승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친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말(0.51%) 대비 0.06%p 오른 0.56%로 집계됐다. 7월 한달 연체채권은 1조5000억 원이 새로 생기고 6000억 원이 정리돼 총 9000억 원이 늘었다. 연체채권 잔액은 8조8000억 원이다. 뉴스스

광주·전남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중소기업부 광주전남청은 올해 하반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주)태봉 등 9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브랜드·디자인 개발, 온라인 마케팅,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

케팅 활동 경비를 정부 보조금 기준으로 연간 1억원 한도에서 4년간 최대 4억원을 바꾸어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하반기 광주·전남 지역 지원 대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개사가 증가한 총 9개사로 광주 4개사, 전남은 5개사가 지원을 받는다. 이들 기업에는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수행 등에 총 3억6000만원이 지

원된다.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기업은 해외마케팅 외에도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년간 6억원 한도까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마케팅·시제품 제작·지식 재산권 획득 등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프로그램에 따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서은홍 기자

7월 기업대출 연체율 0.81%...중소연체율은 0.58% 조선·자동차 산업 불황에 중소기업 실적 악화 원화대출 평균 연체율 0.56%...전월比 0.05% 상승 다른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0%p 오른 0.58%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4년 이후로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올해 7월 들어선 전월보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